

길도 경계도 사라진 순백의 백두설원 걸음마다 희망이...



< 28 >

매봉산 → 피재 → 구부시령

백

두대간이 심호흡을 하는 곳. 매봉산(1,303.3m). 천의봉이라고도 불리는 이 곳의 입지에 대해서는 정교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태백산맥을 왜 낙동정맥으로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북에서 남으로 곧게 흐르던 이 땅의 동맥이 이곳에서부터 남서로 방향을 틀어 내륙 깊숙이서 속리산을 솟구쳐 올리고 다시 남하하여 지리산에 이르는 그 실패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눈(雪)은 길을 지운다. 하지만 눈길은, 내가 가면 곧 길이라는 '길'이다. 그래서 눈길은 조심스럽다. 뒤에 올 사람까지 허방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은 경계를 지운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우고, 백년이나 천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길을 만든 사람과, 지금 그 길을 가는 사람의 경계를 지운다. 그래서 눈길은, 윗가는 길을 걸음을 희망으로 들뜨게 한다. 답습이 아니라 개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길은 고독하다. 끝없이, 이 길이 바른 길인가 하고 묻게 만들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다 어디선가 마주 오는 발자국을 만났을 때, 비로 소 안도한다. 제대로 왔구나 하고, 그러면서 마주 온 발걸음에 포개어 앞으로 나아가다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만나게 되면, 한 순간 걸음은 엇박자가 된다. 내려오는 이와 오르는 이의 보폭과 발자국 모양이 어긋나는 탓이다. 그때 떠오르는 한 생각 '일장 바퀴 생각하기'의 어려움이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결국은 한 길인데, 모양과 방법의 작은 차이에 걸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었구나.

눈 덮인 겨울은 또 이렇게 가르친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우선 대동여지도의 발문에서 밝힌 바, '산은 물을 가른다(山自分水嶺)'는 우리 고유의 지리인식 체계를 적용해 보자. 이른바 낙동강 수계라 불리는 영남 일대는, 매봉산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과 매봉산에서 부산의 물운대에 달하는 낙동정맥에 의해 형성된다. 산이 물을 가름으로써 사람살이의 터전이 마련되었다는 예이다. 이러한 사실은 낙동강과 한강이 백두대간을 분수령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모두가 아는 대로, 낙동강 천 삼백 리(525.15km)가 영남의 북쪽 정점이자 백두대간 남쪽 기슭인 태백(叢)지에서 발원하고, 한강 또한 백두대간 북쪽 기슭의 태백(叢)대봉 자락 검룡소에서 시작한다. 거들강조하건대, 하루빨리 일체의 산물인 산맥 중심의 지리인식 체계는 고쳐져야 한다. 우리 땅은 1대간 1정맥 13정맥의 체계로 파악해야만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주장은 결코 새로운 사실이 아닐 뿐더러 '우리 것'만을 고집하는 국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딱딱한 얘기는 여기서 접기로 하면서 사족 하나, '산이 물을 가른다' 할 때의 '가름'은 배타적 가름이 아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조화의 다른 말이다. 음과 양, 불과 땅,

구름과 비 같은 관계를 일컫는 말인 것이다. **매봉산에서 피재(920m)로 내려서는 백두대간은, 요즘 같은 눈길에도 1시간 남짓이면 족할 정도로 편안한 길이다. 삼척 쪽에서 난리를 피하여 넘어온 고개라는 데서 유**

래한 피재는 달리 '삼수령'이라고도 불린다. 이 고갯마루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세 갈래로 나누는데, 갈라진 물들은 각기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삼척 오십천으로 흘러든다. 피재에서 건의령으로 향하는 백두대간은



매봉산에서 바라본 동해 일출.

무릎 빠지는 건의령 눈길 '물길 거스르듯' 겸손 가르치는 겨울산은 '인생의 교사'

구름과 비 같은 관계를 일컫는 말인 것이다.

래한 피재는 달리 '삼수령'이라고도 불린다. 이 고갯마루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세 갈래로 나누는데, 갈라진 물들은 각기 한강과 낙동강 그리고 삼척 오십천으로 흘러든다.

피재에서 건의령으로 향하는 백두대간은



눈길을 열며 나아가는 산행객의 모습은, 자연의 길과 인간의 길을 일체화하는 데 있다.

눈이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그리 힘들지 않다. 그렇지만 콧노래를 부를 정도는 아니다. 조망이 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울창한 울창한 봉우리들을 겨우 만나야 하므로.

건의령에서부터는 추위와 눈이라는 '산 넘어 산'을 함께 올라야 했다. 이곳에서부터, 몇 십년 전의 기록을 갱신한 눈의 높이와 수운주의 깊이 사이에서 헤매게 된 것이다. 날 세운 바람의 울은 무자비하게 살갓을 파고들었고, 무릎 가까이 빠지는 눈은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기도 하는 것처럼 두 다리의 근육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어쩌라. 구르는 호박이 아니라 쫄쫄 신세인걸. 한 걸음 한 걸음 밟아나가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더욱이 그것만이 체온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보면, 이동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생존의 몸짓이기도 했다.

간간이 앞서 간 도끼 발자국을 만난다. 그러면 발자국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점검한다. 참으로 강한 인간이 되고자 하면 '겸손'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덧붙여, 이번 산행에서는 '춤, 힘들다. 길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것과 같은 지극히 동물적(本能)이 나를 지배했다는 사실도 고백해야겠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이란 존재의 무력함이나 인간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순간순간마다 철저히 느꼈다. 소중한 경연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산은 열부(熱父)와 자모(慈母)의 모습을 아울러 갖춘 인생의 교사가 아닐 수 없다.

평상시 같았으면 서너 시간이면 족할 거리를 하루를 다 바쳐 도착한 곳은 '구부시령'을 눈 앞에 둔 봉우리 아래. 눈을 다져 천막을 치고, 눈을 녹여 밥을 지어 먹고는 가진 옷 다 꺼내 입고 침낭으로 몸을 감싼다. 따뜻한 아랫목과 그리운 얼굴들을 그려본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해진다.

또 아침,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기계를 움직이듯이 몸을 일으켜 세운다. 밤새 성에로 바킨 입김이 눈처럼 쏟아져 내린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전생을 거쳐 오며 쌓인 업(業)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스친다. 절로, 매 순간이 전(全) 생애와 같은 무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옮겨간다. 너무 거창한 생각일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건만, 산행 목표의 반도 못 채우고 덕향산 아래 구부시령에서 태백시 하사미동 쪽 하산 길을 택한다. 계속 가는 일은 접어야 할 욕심(欲心)이 분명했다. 구부시령, 그 옛날, 요절한 남편 아흔을 모시고 살아야 했던 어느 기구한 아내의 삶에서 비롯된 이름이라 한다. 그런 신산스런 내력을 지닌 고개건만, 상념에 젖을 겨를도 없이 내려서는 발걸음은 야박스럽게 가볍다.

다음 산행에서는 심설(心雪) 산행의 운치와 겨울 산의 장쾌함을 전하기 위해 좀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새천년의 발원

- 손 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한국의 연등은 최고 품질과 자능력을 자랑합니다.

- 연등의 종류별로 용가동이 있습니다.
- 각 사찰이름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만월등)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팔모주름등



(빨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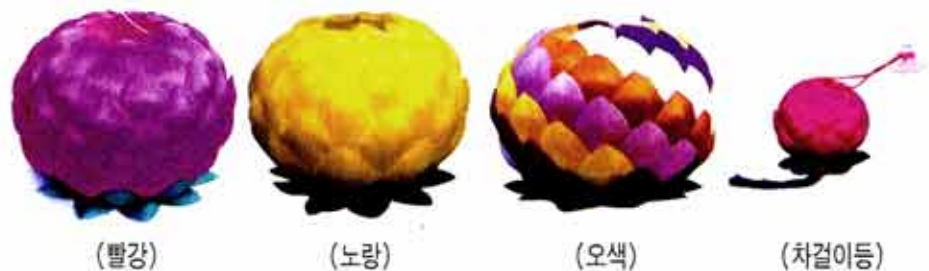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팔모조립등



(빨강)

(노랑)

(주련등 빨강)

(주련등 노랑)



(육각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안국일 제조팩터(떡이 계122168호) / 팔각형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디수 보유업체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